

고난주간 특별새벽 기도회 간증문

수지 대학지구 1캠퍼스 브엘목장 최우영 캄장

나는 죄인입니다.

신앙의 시작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시작됩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새벽 기도회 또한 '그 사랑을 배신하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주님은 나를 비추시고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으뜸가는 수제자 '베드로', 그 베드로 또한 닭이 울기 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그는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했으며, 순간적이지만 주님과의 거리를 허용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익숙한 이야기, 익숙한 깨달음일 것입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동원 원로 목사님의 한마디로 앞서 얘기한 익숙한 깨달음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나의 연약함을 비쳤습니다.

'배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베드로보다 더 악한 죄인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 (딤후 1:16)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는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삶에 동행하심'을 보여주셨음에도 나태했으며, 삶 가운데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시며 깨닫게 하심에도 연약하여 다음날 다시 두려워하며 기도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계속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도 이 죄인은 잠깐 감사하다고 고백할 뿐 다음날 그 말씀과 은혜를 망각합니다. 지금도 두려워하고 있는 내 모습이 싫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죄인 또한 사랑해 주셨고 지금도 사랑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을 앞에도 계속된 나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인한 일방적인 배신...이 배신의 늪을 끝내고 싶어도 평생 동안 빠져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은 영원하시며, 나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찾아오실 때에 내가 기뻐 찬양할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나의 소망되신 주님, 그 한줄기 빛을 품고 나아갑니다.